

# 이 땅의 모든 할머니들에게 보내는 연서

다큐 '할머니의 먼 집' 이소현 감독



“할머니 죽으면 나 못본디 괜찮아?”  
화순에서 할머니와 함께한 삶  
2년 6개월간 촬영해 영화로  
광주극장에서 상영  
전라도 사투리도 자막에 담았어요

“할머니 왜 죽을라 그랬어”  
“성가신게, 나이가 이렇게 많은 게 죽어  
아직, 다 죽어부렀는지.”  
“죽으면 나도 못본디 괜찮아?”  
잔잔한 피아노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다  
큐멘터리 '할머니의 먼 집' 속 할머니와  
손녀딸의 대화에 마음이 내려앉는다. 다  
큐 주인공은 화순에 살고 있는 93세 박삼  
순 할머니와 외손녀 이소현(35) 감독이다.  
취업 준비를 하던 이 감독은 화순에 살  
고 있는 할머니가 자살하려했다는 '뜻밖  
의' 소식을 듣는다. 할머니는 병원에서 받  
아 모아둔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 
다. 장례비용으로 쓰라며 전 재산 30만원  
을 화장대 위에 놓아두고서.  
이 감독은 “할머니가 나를 떠나지 못하  
도록 지키기로” 했고 할머니의 삶을 영상  
에 담았다. 그녀의 첫번째 장편 다큐멘터  
리 '할머니의 먼 집'은 세상의 모든 할머니,  
어쩌면 가족에게 보내는 연서다.  
화순에 살던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일 때  
까지 그녀를 키워준 할머니는 이 감독에게  
특별한이었다. 세월이 흘러 이 감독이 자  
란 만큼 할머니는 작아져 있었다.  
전화 인터뷰에 응한 이 감독은 “가끔 오  
시는 분들은 못 알아보시기도 하는데 나는  
정확히 알아보신다”며 웃었다.  
할머니 자살 소식을 들었던 2013년 이  
감독은 서울집에서 취업준비중이었다. 대  
학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베트남 NGO에  
서 도서관 짓는 일을 하다 한국에 막 돌아  
온 참이었다.  
“도 그럴까봐 걱정이 됐어요. 그래서 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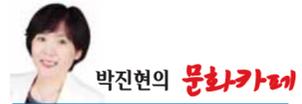
머니 곁에 있기로 했습니다. 의외로 할머  
니랑 같이 찍은 사진이 없어 사진을 많이  
찍어야겠다 싶었어요. 찍다보니 요즘 카페  
라는 동영상 촬영도 할 수 있어 영상을 찍  
었고, 아이폰으로도 촬영했어요.”  
할머니는 “위파, 뭐 이런 송장 같은 할  
매를 찍나”라면서도 손녀와 한복 차려 입  
고 기념 촬영을 하고, 부지런히 손을 돌려  
일하고, 손녀 딸 먹음 음식을 만든다.  
무엇보다 투박한 전라도 사투리에 담긴 대  
화엔 서로에 대한 사랑이 한가득 담겼다.  
(자막에도 사투리를 그대로 썼다)  
“2년 6개월간 촬영했어요. 처음에는 영  
화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었죠. 촬영 6개  
월이 채 못됐을 때 영화에도 등장하는 큰  
외숙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. 외숙 아들  
이 가시는 길을 찍어놨으면 좋겠다고 말씀  
하셔서 다시 카메라를 잡게 됐고 이후 긴  
시간 촬영하게 됐어요.”  
외숙은 집에서 실족사하고, 가장 먼저  
그 죽음을 발견한 게 바로 할머니였다. 외  
손녀 덕에 삶의 낙을 찾았던 할머니는 다  
시 무너지기 시작하고, 94세가 되어서는  
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막걸리를 매일 마시  
기 시작한다.  
“영화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  
있어요. 할머니가 어디선가 작은 새를 발견  
하고서 가져 오셨어요. 전 낫잡을 잡고  
있었는데 할머니가 ‘요것 좀 봐라’ 보여주  
시는데 그 때 할머니 표정이 너무 전진난  
만했어요. 아이폰으로 급히 찍은 장면인  
데 너무나 보여주고 싶어하는 할머니 마음  
이 느껴져 정말 좋았습니다.”



다큐 '할머니의 먼 집' 주인공 박삼순(왼쪽) 할머니와 외손녀 이소현 감독.

영화가 완성된 후 지난해 제41회 서울  
독립영화제에 상영할 기회를 얻었고 '관  
객과의 대화'에 할머니와 함께 참석하고  
싶었다.  
“장편으로 만들어 영화제에 출품해야  
겠다고 생각한 건 할머니와 극장에서 꼭  
영화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. 또 영화  
제에서 사람들이 많은 박수를 쳐주고 '할  
머니 삶이 아름다우시니까 자살하지 마세  
요' 그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았어요. 서  
울 큰 극장에서 할머니 영화를 한다고 하  
니가 '뭐더라 사람들이 그런 거 보러 온다  
냐. 거짓말 아니냐' 그러셨어요. 극장에 사  
람들 꼭 잔 거 보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.

할머니는 너무 떨려서 '못난 저를 보러 오  
셔서 고맙다'는 인사만 하셨어요.”  
영화 속에서 할머니를 둘러싼 가족들의  
다양한 시선이 등장한다. 예순 다섯살 된 이  
감독의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영양제를 놓아  
주는 이 감독에게 “억지로 생명을 연장시킬  
필요 없다”고 말한다. 하지만 할머니를 양  
원에 보내지는 가족들의 결정에는 눈물을  
흘리며 실천하지 못하는 게 또 그녀다.  
이 감독은 “영화를 보고 나서 '할머니  
보러 다녀왔다. 더 잘해드려야겠다' 이야  
기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다”고  
말했다. 영화는 광주극장에서 상영된다.  
/김미은기자 mekim@kwangju.co.kr



박진희의 문화카드

올해로 17회를 맞은 전주국제영  
화제(4월28일~5월7일)는 작지만  
강한 영화제다. 매년 주류영화와  
다른 독창적인 영화들을 상영해 수  
많은 영화제 속에서 자기만의 색깔  
을 보여주고 있다. 특히 올해는 그  
어느 해 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  
다. 다름 아닌 셰익스피어(1564~  
1616) 때문이었다. 셰익스피어 400  
주기(4월23일)를 맞아 영국문화원  
과 공동으로 그의 삶과 예술을 되  
돌아본 특별전 '셰익스피어 인 시  
네마'를 기획한 것이다.  
이 특별전에서는 셰익스피어를  
가장 잘 해석하는 배우로 불리는  
로렌스 올리비에 연출의 '헨리 5세'

취재자 만난 로열셰익스피어컴  
퍼니(RSC) 관계자는 “셰익스피어  
서거 400주기였던 지난 4월23일 전  
후로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  
평소(490만 명)보다 20~30% 늘어  
다”고 귀띔했다. 그래서일까. 시내  
중심가에 위치한 식당과 카페는 관  
객들로 활기가 넘쳤고 'No Vacancy'  
(빈방 없음)라는 표지판을 내건 소박한 민박집들이 눈에 많이  
떠었다. 마을 한복판에 자리한  
RSC도 이들 관광객을 극장 안으로  
끌어들이기 위해 하루에 2편의 작  
품을 공연하기도 했다.  
이처럼 올해 국내외 문화예술계  
의 '핫이슈'는 셰익스피어의 서거

## '셰익스피어 in ACC' (문화전당)

를 비롯해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 
400주년이었다. 국내에서도 출판  
계를 중심으로 셰익스피어 관련 서  
적 출간과 학술행사, 공연이 이어  
지는 등 추모 열기가 뜨거웠다.  
최근 광주에서는 국립 아시아 문  
화제를 찾은 관객들은 세계적인 대  
문호의 예술성과 인간적인 면모를  
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.  
'셰익스피어 인 러브' '로미오와 줄  
리엣'이 셰익스피어 영화의 전부  
(?)인 줄 알았던 내게 그로테스크  
한 연출의 '맥베드'는 신선한 충격  
이었다.  
그로부터 두 달 후인 지난 7월  
초, 셰익스피어의 출생지이자 만년  
을 보낸 영국의 스트랫포드 어폰  
에이번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.  
런던의 킹스크로스역에서 기차로 2  
시간 거리에 위치한 스트랫포드 어  
폰 에이번은 인구 2만 7000명의 작  
은 마을이었다. 중심가로 들어서자  
마치 '로미오와 줄리엣'의 무대를  
울려놓은 듯한 중세시대의 분위  
가 인상적이었다.

출판계를 중심으로 셰익스피어 관련 서  
적 출간과 학술행사, 공연이 이어  
지는 등 추모 열기가 뜨거웠다.  
최근 광주에서는 국립 아시아 문  
화제를 찾은 관객들은 세계적인 대  
문호의 예술성과 인간적인 면모를  
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.  
'셰익스피어 인 러브' '로미오와 줄  
리엣'이 셰익스피어 영화의 전부  
(?)인 줄 알았던 내게 그로테스크  
한 연출의 '맥베드'는 신선한 충격  
이었다.  
그로부터 두 달 후인 지난 7월  
초, 셰익스피어의 출생지이자 만년  
을 보낸 영국의 스트랫포드 어폰  
에이번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.  
런던의 킹스크로스역에서 기차로 2  
시간 거리에 위치한 스트랫포드 어  
폰 에이번은 인구 2만 7000명의 작  
은 마을이었다. 중심가로 들어서자  
마치 '로미오와 줄리엣'의 무대를  
울려놓은 듯한 중세시대의 분위  
가 인상적이었다.  
(편집부국장·문화선임기자)

## 대전 극단 우금치, 마당극 '천강에 뜬 달' 광주 공연

6~8일 금남로 5·18광장

1990년 창단한 대전 극단 '우금치'는 전  
국을 누비며 '현대판 유랑 광대들'이다. 지  
금까지 대한민국전통연희대상, 백상예술  
상, 장작극단극대상 대상 등을 수상하며  
국내 대표 마당극 단체로 자리잡았다.  
그들의 작품에는 웃음과 눈물과 감동이

있다.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해학으로 풀  
어내고 있는 우금치가 마당극 '천강에 뜬  
달'을 광주에서 공연한다. 6~8일 오후 8  
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·18 광장.  
이번 작품은 광주 5·18민주화운동 기념공  
연 상설화사업의 일환으로 특별 제작됐다.  
내가 듣는 모든 것이 진실인지, 거짓인  
지 구분하기 힘든 요즘 세상이다. '천강에

뜬 달'은 진실이 가려지고 거짓으로 뒤덮  
인 오늘의 세대와 삶의 애환을 해그러낸  
작품이다. 마당극 속에는 5·18, 세월호, 사  
드, 위안부 문제 등 뜨거운 이슈들이 등장  
하지만, 이를 딱딱하고 무겁게 풀어내기  
보다는 신랄한 풍자와 해학으로 묘사, 관  
객들의 몰입도를 높인다.  
망월할미는 차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먼  
저 떠난 이들을 그리워한다. 억울하게 죽  
은 아들 영철과,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  
해 진실 규명을 외치다 세상을 떠난 영감

이다.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동수네 가족  
은 모두 제 할 일을 하느라 바쁘다. 아내 정  
숙은 요양 보호사로 망월할미를 돕고, 이  
제 막 취직할 아들 배리, 대학 동아리 활동  
에 열심인 딸 다리오 바빠 살아간다. 어느  
날 이들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닥치는데...  
총감독은 이지현씨가, 극작과 연출은  
우금치 대표 류기형씨가 맡았다. 이주행·  
김환식·함석영·임창숙·이신애·이광백씨  
등이 출연한다. 문의 062-670-7943.  
/김미은기자 mekim@kwangju.co.kr

## 문화포털에서 투표하고 공연·영화관람권 받자

문화초대 투표 이벤트

'문화포털에서 투표하고 공연·영  
화 관람권 받으세요'  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  
이 '2016 문화의 달'을 맞이해 '문화포  
털(www.culture.go.kr)'에서 '문화  
초대 투표(POLL) 이벤트'를 연다.  
이벤트는 1차와 2차로 진행되며, 1  
차 응모기간은 23일까지, 2차는 11월

1일부터 20일(일)까지다. '문화포털'  
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추천 공  
연, 영화 중 보고 싶은 작품 1편에 투  
표하면 된다. 1일 1회 응모할 수 있으  
며, 응모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  
이 올라간다.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  
람들에게는 자신이 투표한 작품을 무  
료로 감상할 수 있는 관람권을 제공  
한다.  
/김용희기자 kimyh@kwangju.co.kr

**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**

체육관련업종(에어로빅, 체육관, 당구장)  
병원, 학원, 미용실, 골프 아카데미등

- 전용 289㎡ (락볼링장 옆, 점포 2건)
- 매 7억5천만원 (근저당 5억원), 실투자 2억5천만원

**락볼링장 매매**

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 
현성업종 직영하실분

- 볼링장 16레인, 시설비품 일체포함
- 매 26억5천만원 (근저당 20억), 실투자 6억5천만원

**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**

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 
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

- 매23억 (근저당 14억5천만원), 실투자 8억5천만원

**문의 010-3647-4747**  
(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구매조정이 가능합니다)

www.솔향기맑은터.com

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

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(풍림죽림길 86)  
대표전화 (061)336-0770

솔향기정식(예약에 한함)  
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 
www.솔향기맑은터.com  
061)336-3939

**참숯가마**

24시간 OPEN!!

**맛의향연**

다양한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, 목, 토, 일  
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
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, 족구장, 10인승, 20인승 무료이용  
평균작업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
염가공급 1톤 30만원 (양돈, 양계, 한우, 하우송농가대상)  
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% 할인

●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, 16인실, 32인실, 56인실 구비  
● 솔향기정식(예약에 한함), 돼지갈비 전문점  
▶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%할인  
▶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.

**각종모임(상견례, 가족모임, 기업체모임)/컨퍼런스룸/참숯가마 찜질방/노래방 & 동전노래방**